

한국전쟁 휴전회담 초기 '개성사건'과 군사분계선 협상*

金 甫 穎**

1. 머 리 말
2. 개성회담 : 군사분계선 협상의 시작
3. 판문점회담 : 군사분계선 설정과 전투계속의 원칙
4. 맺 음 말

1. 머 리 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7월 26일 양측은 5가지 의제 선정에 합의하였고,¹⁾ 곧이어 군사분계선 협상이 시작되었다. 본격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250).

**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

1) 10일간의 회담과 6일간의 휴회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의제는, 첫째, 회의 의제 채택, 둘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설정, 셋째, 정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정, 넷째, 포로 협정, 다섯째, 양측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정치회담 개최문제) 등이었다.

적인 협상의 첫 의제인 만큼, 양측은 군사분계선 협상에 큰 의미를 두었다. 양측은 사실상 군사분계선 협상이 해결되면 곧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은 쉽지 않았다. 군사분계선을 어디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 사안이었지만, 논쟁은 엉뚱하게 회담장소 문제와 결부되어 진행되었다. 그 와중에 일련의 '개성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일시적으로 회담이 결렬되었고 회담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이전되었다. 개성사건과 회담장소의 이전문제는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긴 후 계속된 회담에서는, 개성지역 확보와 휴전체결 시점에 대한 전망, 협상과 전투의 병행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양측은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소모전을 지속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다. 유엔군 측이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였고, 공산군 측에서 특히 폭격의 피해가 극심했던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군사분계선 협상이 타결되면 전투를 중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결국 유엔군 측의 '전투계속의 원칙'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휴전회담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군사분계선 협상은 주로 양측의 분계선 주장, 즉 공산군 측의 38도선 주장과 유엔군 측의 접촉선 주장의 대립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에 최대 쟁점은 개성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일련의 개성사건과 개성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장에서의 설전이 그것이다. 또한 이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전투계속의 원칙은 이후 전쟁의 양상과 휴전회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서 개성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전투계속의 원칙에 주목한 연구는 없다.

개성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 측 자료에 근거하여 공산군 측의 조작이거나 선전전의 일환으로 파악했다.²⁾ 공산군 측이 회담 초

2) 이병주, 「휴전회담실무대표회의록문석(1)-공산군 측의 협상전략과 전술을 중심으로」, 국

기부터 협상을 결렬시키되 그 책임을 유엔군 측에 덮어씌울 구실을 필요로 하였고, 자신들의 선전적 입지를 강화하여 회담의 주도권을 쥘려고 차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³⁾ 또한 공산군 측이 개성을 휴전회담 장소로 제의한 것부터 그들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였으며, 허위사실의 날조와 회담 지연 술책을 구사하면서 유엔군 측으로 하여금 스스로 휴전회담 장소를 옮기는 제안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⁴⁾ 회담장소 이전문제와 개성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는 개성사건이 공산군 측의 조작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사건의 실체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회담장소 문제와 개성사건, 이후 협상에서의 개성지역을 두고 전개된 논쟁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휴전회담 초기 군사분계선 협상과 일련의 '개성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핵심쟁점은 공산군 측의 38도선 주장과 유엔군 측의 접촉선 주장의 대립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협상을 지연시킨 요인은, 일련의 개성사건과 회담장소 이전문제였다. 결국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재개된 회담에서도 개성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둘째, 유엔군 측이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산군 측이 처음에는 전투중지를 요구하다가 결국 이를 수용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공산 3국 간의 이견과 조정 과정, 그 귀결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장기 소모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토통일원정책기획실, 1979.

3) 양영조, 「1951년 단장의 능선 전투와 군사분계선 협상」, 『戰史』 제5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142쪽.

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131쪽.

2. 개성회담: 군사분계선 협상의 시작

(1) 38도선과 접촉선

휴전회담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협상은 1951년 7월 26일 본회담에서 시작되어, 1951년 11월 27일 잠정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⁵⁾ 군사분계선 설정이 휴전회담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양측은 이미 의제 채택과정에서 공산군 측의 38도선 주장을 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한차례 논란을 경험한 터였다.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 협상이 시작되자 다시 38도선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유엔군 측은 38도선을 반대했지만, 군사분계선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산군 측이 38도선에 대한 방침을 확정한 것은 1951년 6월 초였다. 북경에서 회동한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회담에 임하는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는 것이 휴전 기본조건의 하나라고 확정했다.⁶⁾ 마오쩌둥은 군사분계선 협상이 개시되기 전날인 7월 25일 리커닝에게 “반드시 38도선을 경계로 하라”는 지침을 재차 내려 보냈다.⁷⁾

군사분계선 협상 첫 날,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은 “38도선을 쌍방의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쌍방이 38도선에서 각자 10km씩 물러나서 그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남일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것

5) 군사분계선 협상과정은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2권(본회담기록: 1권은 개성회담, 2권은 판문점회담기록 수록), 1994과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제2의제 관련 제1~37차 분과위원회 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6) 공산 3국간의 협의를 거쳐 6월 23일 소련대표 말리크는 유엔 연설에서 “교전 쌍방이 휴전을 상의해야 하며, 쌍방은 군대를 38도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38도선 주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권, 102쪽.

은 “세계가 공인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며, 사실상 이번 휴전회담의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현재의 현황에 부합되는 오직 하나뿐인 공평하고 합리적인 선이라고 주장했다.⁸⁾

그러나 유엔군 측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해군과 공군력을 토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7월 27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군사분계선은 전투상황에 의거 결정되어야 하며, 전투상황의 현실은 지상군 및 공군과 해군의 3개 군의 총체적인 힘과 능력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협상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기 위한 유엔군 측의 계산된 협상전술이었지만,⁹⁾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했다는 낙관적인 정세판단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첫 날부터 회담장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7월 28일 마오쩌둥은 리커닝에게 전문을 보내, 38도선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라고 지시했다.¹⁰⁾ 공산군 측 대표단은 38도선이 전장에서 의 쌍방의 형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7월 이후 쌍방의 교전 지역이 38도선을 남북으로 네 차례나 오르내렸으며, 쌍방의 공격과 후퇴가 결코 38도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쌍방

8) Record of Events, T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1951.7.26),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53~161쪽.

9) 유엔군 측은 당시 점령하고 있던 전선의 위치보다 30~50km 북쪽에 분계선이 표시된 군사지도를 공산군 측에 제시했다. 이 최초의 제안은 당시 유엔군 측이 확보하려던 선보다 훨씬 북상시킨 것이었다. 당시 전선의 위치는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간성을 잇는 선이었는데, 유엔군 측이 제시한 분계선은 해주-금천-시변리-평강-장전을 잇는 선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철의 삼각지대를 유엔군 측에 포함시킨 선이었다(Record of Events, Elev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 (1951.7.27),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63~174쪽).

10) 『마오쩌둥이 리커닝에게 1951. 7. 28』 소련군 참모본부 제2총국 제22265호 암호전보, A.V. 토르쿠노프 저, 앞의 책, 338~339쪽. 보고를 받은 마오쩌둥은, “조이의 발언은 광망스럽고 황당하여 완전히 전장의 아우성이자 결코 휴전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흥분했다.

의 군사력을 잘 반영하고 있는 38도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¹¹⁾

그러나 유엔군 측은 38도선은 단순한 정치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며, 공산군이 지난 13개월 동안에 네 차례나 이 선을 횡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선은 군사분계선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군사 휴전에서 38도선과 같은 가상의 지리적인 선은 하등의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였다.¹²⁾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여론을 동원하여 회담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¹³⁾ 8월 1일 북경의 중앙인민방송국 평터화이의 연설 방송과, 8월 초순 신화사와 인민일보사 등 한반도 주재 종군기자들의 관련 기사는 이러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¹⁴⁾ 이들은 유엔군 측이 “회담을 가능하게 했던 말리크의 원래의 건의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렸다”고 비난하였다.

11) Record of Events, Thirte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 Transcript of Proceedings, Thirte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s Record of Events and Transcripts of Proceedings Kaesong Meetings Session 1(10 July 1951) through Session 26(16 August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97~222쪽.

12) Record of Events, Thirte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 Transcript of Proceedings, Thirte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s Record of Events and Transcripts of Proceedings Kaesong Meetings Session 1(10 July 1951) through Session 26(16 August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97~222쪽.

13) 『리커닝이 마오쩌둥에게 1951. 7. 31』;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1951. 8. 1』, 소련군 참모본부 제2총국 제22446호 암호전보, A.V. 토르쿠노프 저, 앞의 책, 339~342쪽. 마오쩌둥과 리커닝의 왕복서간 전문을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109~110쪽.

14) 평터화이, 『中國人民志願軍是不可戰勝的力量』, 베이징 중앙인민방송국 보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109쪽; 『評朝鮮停戰談判(인민일보 사설: 조선에서의 정전회담을 평함)』, 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 2002,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I』, 174~178쪽.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8월 4일 북한과 중국 측의 개성 중립지대 위반사건이 일어났다. 개성중립지대 안전업무를 담당하던 공산군 측 일부 경비대원이 회의장으로 향하던 도중 쌍방이 합의한 개성 중립지대를 침범한 사건이었다. 유엔군 측은 이 문제를 빌미로 회담 참석을 거부하였고 회담은 8월 10일까지 중단되었다. 공산군 측은 이를 착오라고 시인하였으며,¹⁵⁾ 김일성과 펑더화이 명의로 릿지웨이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한을 보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회담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¹⁶⁾

8월 10일 회담이 재개되었지만, 군사분계선 문제에 대한 양측의 태도는 완강했다. 유엔군 측은 군사분계선의 기준으로서 38도선에 대해 토의하기를 절대적으로 거절하였으며, 공산군 측은 38도선 이외의 다른 어떤 선에 대한 토의도 거부했다.

릿지웨이는 공산군 측에게 72시간의 여유를 주되, 만일 변화가 없다면 휴전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는 강경책을 합참에 건의했다.¹⁷⁾ 그러나 합참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참의 기본지시는 회담을 결렬시키라는 특별지시가 없는 한 회담을 결렬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차원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다.¹⁸⁾ 만일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이 명확히 공산군 측에 있다고 인정될만한

15) 『To Vice-Admiral C. Turner Jo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from Nam Il, General,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53쪽.

16) 『To General Ridgway from Kim Il Sung, Peng Teh-Huai, 1951. 8. 9』,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54쪽.

17)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Ridgway)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1951. 8. 11, C-68672, FRUS 1951, Vol. VII, pp. 801~810.

18)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Ridgway) 1951. 8. 11, JCS-98713, FRUS 1951, Vol. VII, pp. 811~812;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1979, 44쪽.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정부의 입장이었다. 합참은 휴전회담 개시 이전에 유엔사무총장과 미 국무장관 애치슨 등이 행한 앞서의 연설이 공산군 측을 오도하여 유엔군 측이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바와 북경이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38도선에 관한 입장의 차이가 공산군 측으로서 회담을 결렬시키는 전환점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합참의 결론이었다.¹⁹⁾ 요컨대 상대방의 38도선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할 만한 근거를 자신들이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것이었다.

미국은 1950년 12월 휴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휴전선으로 38도선의 군사적 타당성에 관해 여러 차례 검토하였고, 휴전교섭 시 38도선이 최저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1950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미·영 수뇌회담에 대비한 정책문서에서도 38도선 부근에서의 휴전과 비무장지대 설치를 명기한 바 있었고, 일련의 38도선에 관한 입장 표명이 이어졌던 것이다.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협상장에서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리커닝은 8월 12일 38도선 주장을 포기하지는 건의를 마오쩌둥에게 보냈다. 유엔군 측이 38도선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8도선 주장을 가지고 다투다가 회담이 결렬되는 것보다는 현재의 전선에서 휴전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²⁰⁾ 이때 공산군이 처한 군사적 상황과 제반 여건은 좋지 않았다.²¹⁾ 유엔군의 폭격으로 병참보급로가 끊긴데다 흥

19)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1979, 44쪽.

20) 『毛澤東關於轉發停戰談判第21號簡報致史達林電(리커닝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 8. 12』,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95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112~113쪽.

21) 중국군은 유엔군과 한국군을 38도선 이남으로 밀어내기 위한 6차 전역을 9월에 계획했지만, 8월 10일 저우언라이가 주도한 군사회의에서 공격 시기를 늦추도록 건의했다. 계획

수까지 발생했으며, 소련의 공군지원은 늦춰지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38도선이라는 명분을 포기하되 실리는 쟁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²²⁾ 즉 38도선이라는 명확한 주장을 피하되, 38도선 부근에 군사분계선을 긋는 것이었다. 그 선은 임진강 동쪽으로는 38도선 이북에, 임진강 서쪽으로는 38도선 이남에 위치하게 되면 남북 지역이 대체적으로 동등하게 되고, 이름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²³⁾

8월 15일 제25차 본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답보상태인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였다. 공산군 측의 동의로 제2의제(군사분계선)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²⁴⁾ 8월 17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거의 날마다 회의가 열렸다.²⁵⁾

했던 6차 전역은 10월까지 연기되었다가, 결국 철회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143쪽).

22) 소련 자료를 분석한 「6·25내막/모스크바 새증언 25」(『서울신문』 1995.7.23)에서는 소련과 중국간에 이 문제로 이견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때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협상을 결렬시키기 보다는 유엔군 측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스탈린은 원칙을 고수하며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측 전사에서는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114쪽). 중·소간에 이견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후 군사분계선 협상 과정은 마오쩌둥의 의견대로 진행되었다.

23) 8월 11일과 13일, 마오쩌둥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분석을 리커닝에게 전문으로 통보하고, 대표단이 상대방의 태도를 관찰한 다음 이런 제안을 해도 가능하겠는가를 결정하며, 김일성과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毛澤東關於軍事分界線談判策略問題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리커닝에게) 1951. 8. 11』; 『毛澤東關於轉發中朝方停戰談判目標問題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리커닝에게) 1951. 8. 13』,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953쪽, 964~965쪽).

24) Record of Events, Twenty-six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1951. 8. 16),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423~432쪽. 분과위원회 개최 중에는 본회담은 휴회하기로 합의했다. 제2의제 분과위원회는 유엔군 측에서는 호테스 소장과 버크 제독이, 공산군 측에서는 이상조 소장파 세광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25) 군사분계선 협상을 다루는 제2의제 분과위원회는 1951년 8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회담을 가졌다. 제2의제에 관한 제1~37차 분과위원회 기록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

다음날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산군 측은 태도를 바꾸어 '38도선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²⁶⁾ 이때 공산 측이 제시한 군사분계선은 동부지역에서는 38도선 북쪽으로 4km, 서부지역에서는 남쪽으로 4km를 통과하는 선이었다. 다음날 유엔군 측이 이전의 해·공군력에 대한 '보상' 요구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징후를 보임으로써,²⁷⁾ 회담은 일보 진전되었다. 공산군 측이 38도선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유엔군 측에서 보상이란 개념을 포기할 수 있다는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쟁점은 이제 38도선이 아니라 유엔군 측이 주장한 현 전선의 개념과 실제 분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일련의 개성사건으로 인해 8월 23일부터 2개월여 동안이나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월 22일에 열린 제6차 분과위원회가 개성에서의 마지막 회담이었다.

(2) '개성사건'과 회담장소 변경

개성에서 회담이 시작된 이래, 회담지역과 중립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양측의 비난과 이에 대한 반대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회담장소인 개성을 공산군 측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개성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공산군 측은 개성 주변의 '진공지역'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지적 조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했다. 시설 등을 빌미로 하여 공산군 측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유엔군 측 대표는 일종의 '포로'와 패자의 성격을 띠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도진의 접근도 제한되었다.²⁸⁾ 이 때문에 유엔군

한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에 수록되어 있다.

26) Summary of Proceedings, Second Session,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Kaesong Armistice Conference(1951. 8. 18),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6~8쪽.

27) Summary of Proceedings, Third Session,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Kaesong Armistice Conference(1951. 8. 19),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9~13쪽.

28) 7월 8일의 양측 연락장교 회의에서 유엔군 대표 차량에 휴전회담 대표라는 상징으로 백

측은 개성의 회담지역을 완전하게 중립화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하거나, 회담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했다.

7월 10일 회담이 시작된 다음날부터 유엔군 측의 신문기자 출입요구로 인해 회담이 중단되었다. 유엔군 측은 개성을 중립지대로 하자고 강력히 요구하였고,²⁹⁾ 결국 7월 14일 공산군 측은 이를 수용했다.³⁰⁾ 이에 따라 개성 중심점에서 5마일 반경으로 원형의 중립지대가 설정되었다. 합의 내용은, 이 지대 내에서는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유엔군 측 대표들은 주간에 사전통고 없이 판문점에서 개성간의 도로를 무제한 사용하며, 공산군 측은 호송차량에 백색 십자표지를 하고 시간과 경로를 유엔군 측에 통고하면 공격을 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는 사건이 빈발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련의 '개성사건'이라 칭할 수 있는 위반사건의 첫 사례는 7월 16일, 유엔군 병사들이 판문점을 향하여 사격을 가했다고 공산군 측이 주장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10월 22일 쌍방 연락장교간에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할 때까지 회담장에서 제기된 개성중립지대 위반사건(이하 '개성사건'으로 칭함)은 총 15회나 된다. '개성사건'의 문제제기를 한 측과 상대방의 대응, 결과 등은 <표 1>과 같다.

기를 달도록 합의했다. 조이 제독 일행이 회담장소로 가는 동안, 공산군 측 카메라들이 백기에 렌즈 초점을 맞추어 유엔군 대표가 항복하러 개성에 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4권, 1983, 348쪽). 이 책에서는 이를 "공산 측이 파놓은 개성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1951년 7월 8일 휴전회담 사전 협의차 개성에 다녀온 키니 대령은 보고서에서, 뒷지웨이 장군이 개성을 회담장소로 수용한 것은 분명한 실수였다고 지적했다(Robert Leckie 1962 Conflict: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1953(윤역섭 역, 『충돌: 한국전쟁 이야기 1950-1953』, 삼우사, 2000, 374쪽)).

29) "M. B. Ridgway → General Kim Il Sung, General Peng The-Huai"(1951.7.13),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Pan Mun Jom 10 October 1951-29 Septem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연락장교회의 기록 I, 1~32쪽.
30) "1951년 7월 14일 김일성과 평터화이의 평양 라디오방송 연설",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Pan Mun Jom 10 October 1951-29 Septem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연락장교회의 기록 I, 25쪽.

<표 1> '개성사건'과 대응양상

일시	제기주체	사건내용	상대측 대응	비고
1951. 7.16	공산군측	유엔군 병사들이 판문점을 향해 사격		
1951. 7.21	공산군측	유엔 항공기가 황주와 사리원에서 백색기를 표시한 공산군 대표의 보급트럭에 기총 소사	사전통고가 없는 경우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일축	
1951. 8.4	유엔군측	완전무장한 중공군 1개 중대가 회담장소인 중립지대를 전술중대로 통과	실수라고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5일간 회의 중단, 개성 지역이 완전 중립보장 조건으로 회담 재개
1951. 8.8	공산군측	유엔군 항공기가 시변리에서 백색기를 게양한 대표단 보급차량 공격	공산군 측이 대표단 이외의 목적으로 백색표지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 제기. 공산 측의 조작이라고 주장	
1951. 8.13	공산군측	시변리 부근에서 3대의 공산군 보급차량이 기총사격을 당함 / 판문점 교량 부근에서도 비무장공산군이 약 40명의 유엔군으로부터 사격 당함	공산군 측이 사전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산군 측 항의 묵살	
1951. 8.15	공산군측	유엔군이 공산군 트럭에 기총소사		
1951. 8.19	공산군측	중립지대내 송곡리 부락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중공군 헌병소대가 기습을 당하여 소대장 전사, 한 명 부상	남한쪽 유격대의 독자적 행동이라고 해명	

일시	제기주체	사건내용	상대측 대응	비고
1951. 8.23	공산군측	유엔군 항공기가 휴전회담 장소 폭격	공산군 측이 협상결렬책임을 유엔군 측에 전가시킬 목적으로 사전 조작한 공산군 측의 기만적 행위로 판단	2개월여 동안 회담 중단
1951. 8.29	공산군측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 중립지대에 조명탄 투하		
1951. 8.30	공산군측	유엔군 부대가 공산군 순찰대를 공격하여 총탄이 판문점 교량까지 날아옴		
1951. 9.1	공산군측	유엔군 항공기의 두 번째 개성폭격		
1951. 9.10	공산군측	제3폭격비행단 소속기 1대가 조종사의 항로착오로 개성을 기총소사. 일명 '만월리사건'	공산군 측의 항의에 대해 조이 제독은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 발송	회담장소 이전문제 논의 시작
1951. 9.19	공산군측	한국군 방역부대 병사 4명이 살충제를 실은 트럭과 함께 판문점 다리를 건너 중립지대 침범	중립지대 위반임을 시인	실수로 인정받아 석방됨
1951. 10.7	공산군측	유엔군 B-26 폭격기가 개성 중립지대 무단횡단(폭격은 하지 않음)		
1951. 10.12	공산군측	유엔군의 F-80 1개 편대가 중립지대 무단횡단. 그 중 1대가 기관총 실수로 12세 소년 사망, 2세의 동생 부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994; Hermes W. G., 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 Army, Washington, D.C.(육군본부 역, 『유엔군전사: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James F. Schnabel, Rov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III The Korean War Part II, 1979(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하, 1991).

사소한 중립지대 침범부터 유엔군 항공기의 폭격까지 사례가 다양했지만, 8월 4일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공산군 측에서 유엔군 측이 중립협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것이었다. 특히 8월 23일의 개성 폭격사건은 회담을 결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날 김일성과 평터화이는 릿지웨이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책임 있는 처리를 요구했다.³¹⁾ 그러나 유엔군 측은 이 사건을 공산군 측의 조작이며, 협상을 결렬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³²⁾ 릿지웨이는 8월 25일 반박 서한을 보내, “최근 발생한 몇 차례의 사건이 모두 완전히 사실적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³³⁾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일련의 개성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으며, 대부분의 경우 공산군 측의 조작이라고 대응했다.

개성사건으로 인해 회담이 중단되었지만, 회담 결렬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전가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대응은 서로 달랐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한편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반면 유엔군 측은 선전전에서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회담장소를 이전하고자 했다.

마오쩌둥은 유엔군 측이 압력수단으로 일련의 개성사건을 도발하고 있지만, 먼저 회담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³⁴⁾ 이때 김일성은 개성 지역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국 대표들을 감독관 및 증인 자격으로

31) “Kim Il-Sung · Peng Teh-Huai to Ridgway”, 1951. 8. 23,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Pan Mun Jom 10 October 1951-29 Septem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연락장교회의 기록 I, 156쪽.
 32) 릿지웨이는 공산군 측이 협상 결렬의 책임 전가, 일본의 강화조약과 소련의 평화공세 거양, 협상 주도권 재장악을 위해 회담을 중단한 것이라고 합참에 보고했다(Walter G. Hermes, 앞의 책, 1966, 40쪽).
 33) “Ridgway to Kim Il-Sung · Peng Teh-Huai”, 1951. 8. 25,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Pan Mun Jom 10 October 1951-29 Septem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연락장교회의 기록 I, 163쪽.
 34) 『毛澤東關於敵人在中立區進行破壞問題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적의 중립지구에서의 파괴 행동에 관한 문제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8. 27』,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43~44쪽.

회담에 참석시키자고 제안했다.³⁵⁾ 그러나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회담 상황 평가에 동의하며, 김일성의 제안은 중국과 북한이 휴전협정 체결을 더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미국의 도발사건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³⁶⁾ 이후 공산군 측의 항의가 잇따랐으며,³⁷⁾ 신문과 방송 등 여론을 통한 항의와 폭로가 계속되었다. 유엔군 측은 대부분의 경우 공산군 측의 조작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공산군 측 명분에 영향을 줄만한 실제적 위반사건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³⁸⁾ 이러한 선전전은 유엔군 측에 불리했다.

한편 릿지웨이는 회담 초기부터 회담장소를 변경하고 싶어 했다. 릿지웨이는 개성을 중립지대로 하거나 차선택으로 회담장소 이전을 제기한 데 이어 8월초에도 회담장소 이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산군 측의 거부나 묵살로 무산되었으며, 워싱턴 당국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릿지웨이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9월 5일 마침내 합참은 '안전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새 장소를 제의'하라고 승인했지만, 유엔군 측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게 될 어떠한 조치도 피하고자 했다.³⁹⁾

릿지웨이는 공산군 측에서 단순히 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항의

35) 「毛澤東關於敵人在中立區進行破壞問題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8. 27」,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984~985쪽.

36) 「史達林關於同意中朝方面談判立場致毛澤東電(스탈린이 중·조 측의 담판 입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 8. 29」,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986쪽. 마오는 다음날 스탈린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김일성에게 이미 이 상황을 통보했다는 답신을 보냈다(「毛澤東關於接受史達林的建議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스탈린의 건의를 받아들임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8. 30」,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987쪽).

37)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Pan Mun Jom 10 October 1951-29 Septem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연락장교회의 기록 I, 181쪽. 공산군 측은 회담을 재개하려면 8월 22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야기된 일련의 도발적 사건에 관하여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처리와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38) Walter G. Hermes, 앞의 책, 1966, 19쪽.

39)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1979, 49쪽.

와 비난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은 언젠가 회담을 재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워싱턴의 승인에 따라, 9월 6일 새로운 회담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연락장교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그런데 마침 9월 10일 유엔공군기 1대가 항로착오로 개성에 기총소사를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공산 측이 항의를 제기하자 다음날 조이 제독은 이를 시인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⁴⁰⁾ 유엔군사령부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릿지웨이는 공개적으로 9월 10일의 위반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회담장을 판문점 부근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회담 재개 조건으로 회담장소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사령부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회담장소 변경 제안은 거부했다. 9월 12일, 공산군 측은 유엔군사령관의 회담장소 변경 제안(9월 6일자 서신)을 거부한다고 회신했다. 회담을 재개하되 회담장소는 반드시 개성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9월 24일 회담 재개를 위한 연락장교회의가 개최되었다.⁴¹⁾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 재개와 그 일시만 토의하자고 주장했고, 유엔군 측은 회담장소 변

40) Investigation of Alleged Aerial Strafing of Kaesong, 1035 Item, 10 September 1951, Enclosure (1): Investigation of Alleged Strafing within the Kaesong Neutral Zone on the Morning of 10 September 1951, Sketch 1·2·3, Enclosure (2): Report of Fifth Air Force, To General Nam II,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from C. Turner Jo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To General Ridgway from Kim II Sung,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and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286쪽; Walter G. Hermes, 앞의 책, 1966, 40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상하게도 때마침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때만은 중립지대의 실제적인 위반이었다"고 시인했다. 크고 작은 일련의 개성사건이 양측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도발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항로착오에 의한 실수였다고 유엔군 측은 시인했다.

41) Liaison Officers Meeting, 24 September 1951 at Kaesong, Korea, 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Pan Mun Jom 10 October 1951-29 Septem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연락장교회의 기록 I, 314~325쪽.

경을 휴전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강하게 고집했다. 연락장교회의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나자, 9월 27일 릿지웨이는 직접 나서서 회담장소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다. 릿지웨이와 김일성·펑더화이 사이에 수차례 서한이 오고 간 후,⁴²⁾ 마침내 10월 7일 공산군 측은 회담장소를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⁴³⁾ 공산군 측은 새로운 회담장소로 판문점을 제안하면서, 휴전회담 지역의 중립범위를 개성과 문산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⁴⁴⁾

이때 공산군 측이 회담장소 이전에 동의한 주목적은 회담을 재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 측이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회담장소 이전 문제를 강력하게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유엔군 측은 이를 군사적 압박의 효과라고 보았다.⁴⁵⁾ 그러나 마오쩌둥은 회담장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유엔군 측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⁴⁶⁾ 이미 유엔군 측이 두

42) To Kim Il Sung,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na People's Army and Peng Teh-Huai,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from M. B. Ridgway,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1951. 9. 27; To Generan Ridgway, Commander-in-Chief, Untied Nations Command from Kim Il Sung,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and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1951. 10. 3; To Kim Il Sung,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na People's Army and Peng Teh-Huai,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from M. B. Ridgway,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1951. 10. 4.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348~351쪽.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198쪽. 이 서한은 저우언라이가 기초했다.

44) To General Ridgway,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Forces from Kim Il Sung,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and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1951. 10. 7.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352쪽; 이후 연락장교회의에서 중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공산군 측과 최대한 중립지역 범위를 제한하려는 유엔군 측의 의도가 충돌하여, 10월 22일야 양측은 회담 재개와 중립지대에 관해 합의했다(Liaison Officers' Meetings Kaesong 8 July 1951-9 October 1951, Pan Mun Jom 10 October 1951-29 September 1951, 『남북한관계사료집』 9권: 연락장교회의 기록 I, 637~648쪽).

45) Walter G. Hermes, 앞의 책, 1966, 84쪽.

46) 「1951년 10월 18일자 마오쩌둥이 리커닝에게 보낸 암호 전문 제25025호」, The Most

건의 위반사례를 시인하였고, 세계 여론에서도 미국 측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이를 유보했다가 적절한 순간에 유엔군 측을 비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었다.⁴⁷⁾

일련의 개성사건의 사례는 다양했다. 사소한 위반도 있었고 폭격이나 사격과 같은 중대한 위반도 있었다. 고의적 도발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경우도 있었고 상대방이 우발적 사건이거나 실수라고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회담장에서 제기한 사례 외에 실제로 더 많은 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⁴⁸⁾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개성사건의 의도와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상반된다. 회담 결렬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개성사건을 조작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담을 결렬로 몰고 갔다고 보았다. 반면에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을 압박하고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결렬시키기 위해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개성 사건의 목적이 회담을 지연 혹은 결렬시키려는 데 있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회담 결렬 이후 양측의 대응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공산군 측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한편 이를 선전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주도하고자 했다. 반면에 유엔군 측은 이를 상대방의 선전이나 조작이라고 무시하는 한편, 이를 회담장소 이전과 결부시켰고,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결국 회담장소 이전을 관철시켰다.

Mysterious War of 20th Century: Korean Conflict 1950-1953 Based on Soviet Archives(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프(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도서출판 열림, 1998), 198쪽.

47) 1951년 10월 24일자 마오쩌둥이 리커닝에게 보낸 암호 전문 제25224호, 위의 책, 199쪽.

48) 중국 측 전사에서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 동안에만도 미국 측 항공기가 개성 중립지역 상공을 침범한 횟수는 모두 139번이나 된다고 주장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124쪽).

결론적으로 볼 때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을 압박하여 회담장소를 이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공산군 측은 개성지역을 포함한 중립지대 설정으로 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회담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어느 편이 더 유리해졌는가는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유엔군 측은 이후 협상에서 개성지역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고, 이 때문에 지역홍정 문제로 개성지역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개성사건과 회담장소 이전, 이후 개성지역을 확보하려는 유엔군 측의 의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개연성도 있다. 회담 초기부터 회담장소 이전을 원했던 유엔군 측이 중립협정 위반사건을 빈번히 일으킴으로써 회담장소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고, 회담장소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종의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일단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개성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협상을 통해 개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 판문점회담: 군사분계선 설정과 전투계속의 원칙

(1) 쟁점 ①: 개성지역 확보를 위한 설전

1951년 10월 25일 개성회담이 중단된 지 2개월여 만에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협상이 재개되었다. 유엔군 측은 더 이상 보상 개념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양측 군의 안전과 방어를 위해 전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개성지역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성은 1950년 전쟁 발발 후 최초로 함락된 주요도시였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여기에 공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개성은 38선도의 남쪽에 있어 전쟁 발발 전 남한

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민의 관심과 집착도 대단히 컸다.⁴⁹⁾ 개성은 순수한 군사적 견지에서라도 평양-사리원-문산-서울 축선상의 요충지였다.

회담이 재개되자 유엔군 측은 접촉선의 기준이 될 비무장지대안을 서면으로 공산군 측에 제출했다. 동부와 중부지역인 동해안과 금성지역에서는 유엔군이 접촉선에서 철수하고, 서부지역인 개성 주변에서는 공산군 측이 철수하자는 것이었다.⁵⁰⁾ 개성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공산군 측은 다음날 이 제안을 거부하고, 유엔군 측이 하계와 춘계공세를 통해 확보한 동부전선의 군사적인 중요지대를 넘겨주는 대신, 옹진반도와 연안지역을 양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유엔군 측 역시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단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긴 후 유엔군 측의 복안은, 개성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거나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 두려는 것이었다. 유엔군 측은, 개성에서 휴전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역은 이미 유엔군이 차지했을 것이며, 7월 1일부터 개성이 중립지대였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유엔군 측이 차지하지 못했으며, 개성은 남쪽의 수도인 서울 방어에 필수적이고,⁵¹⁾ 유엔군 측이 북한 해안의 일부 도서를 포기하는 대신 개성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땅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 역시 개성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주장을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일축했으며, 그러한 논

49) 이승만은 백선엽에 이어 1951년 10월 24일부터 유엔군 휴전회담 대표로 참석한 이형근에게 개성을 탈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이형근은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승인을 얻어 인천에 있던 한국군 해병대 1개 대대를 동원하여 개성탈환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이형근, 『군번1번의 외길인생』, 중앙일보사, 1993, 69~73쪽). 이형근은 1951년 10월 24일부터 1952년 2월 6일까지 휴전회담 대표로 참석했다.

50) Sub-Delegation Meeting, Seventh Session, Prepared from Rough Notes Taken by UNC Interpreters and Staff Officers 1951. 10. 25 ; Summary of Proceedings, Eighth Session, 2nd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0. 26, 『남북한관계사료집』3권, 45~62쪽.

51) Summary of Proceedings, Eighth Session, 2nd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0. 26, 『남북한관계사료집』3권, 51~62쪽.

리는 “우리가 휴전협상 때문에 문산을 점령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유엔군 측이 서울 방어를 위해 개성이 필요하다면, 자신들은 평양 방어를 위해 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지역교환 논쟁에 말려들지 않고 군사분계선 협상을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⁵²⁾ 10월 31일 13차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 설치”를 최종 제안이라고 제시했다.⁵³⁾ 그러나 유엔군 측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차선책으로 개성을 비무장지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충을 시도했다.⁵⁴⁾ 그러나 공산군 측은 개성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개성문제에 대한 토의마저 거절했다.

결국 11월 6일 합참은 개성문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싱턴의 원래 입장은 “군사분계선은 일반적으로 현전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고, 공산군 측 대표단은 이 원칙을 이미 수락한 상태였다. 게다가 미국 내 여론도 개성 문제로 인해 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릿지웨이 장군의 개성에 관한 입장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였으며, 관심도 없었다. 뉴욕타임즈는 “대표단들은 이미 휴전선과 관계되는 큰 문제를 합의했는데, 왜 외관상 사소한 문제에 매어 주저하고 있는가”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⁵⁵⁾

52) 『毛澤東關於轉發小組委員會討論分界線的情況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분과위원회 분계선 토론 상황 전달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10. 31』,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1080쪽. 마오는 거의 매일 스탈린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리커닝이 자신에게 협상상황을 보고한 전문을 동봉했다. 이날 마오는 중국 측이 제시한 담판 방침에 동의한 김일성의 10월 25일자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냈다. 북한도 중국 측의 협상제안에 이의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스탈린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53) Summary of Proceedings, Thirteenth Session, 7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143~152쪽.

54) Summary of Proceedings, Fifteenth Session, 9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170~191쪽.

이때 양측은 이미 실질적인 접촉선을 기준으로 하여 군사분계선을 설치하는 원칙에 합의를 한 셈이었지만, 휴전의 전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이것은 어느 시점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 조인 시점의 접촉선을, 공산군 측은 휴전성립 시기에는 관계없이 군사분계선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자고 주장했다.

11월 7일 공산군 측은 “지금 당장 현재의 접촉선을 2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확정된 군사분계선은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⁵⁶⁾ 이러한 주장은 공산군 측이 군사분계선 협상만 마무리되면 곧 쉽게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었다. 공산군 측은 지난 몇 달간 전선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빨리 휴전에 이르면,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곧 최종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⁷⁾ 그러나 유엔군 측은 전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휴전 성립 시까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확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공산군 측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유엔군 측이 다른 의제항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군사적 압력을 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때 유엔군 측은 “군사분계선은 휴전 조인 시의 접촉선에 근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이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반면, 공산군 측은 합의된 바를 반드시 지도에 표시해야 한다

55)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1979, 63쪽.

56) Summary of Proceedings, Twentieth Session, 14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7,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257~273쪽.

57) 중국대표 세팡은, “최근 한반도의 군사정세에서 전략 전술상 의미 있는 큰 변동은 없었다. 당신들의 추계공세는 겨우 몇 개의 고지를 점령한 것일 뿐이다”, “유엔군 측은 휴전 성립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왜 곧 휴전이 될 수도 있다고는 예측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Summary of Proceedings, Twenty-first Session, 15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8,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274~292쪽).

고 고집했다.⁵⁸⁾ 양측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맞섰다.

이러한 팽팽한 대립을 끝낸 것은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일단 유엔군 측의 주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군사분계선 원칙에 대한 조기 합의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원칙에서 유엔군 측 입장을 공산군 측이 수용한 만큼 너무 몰아붙이면 공산군 측이 그들의 최초 요구인 38도선 주장으로 후퇴할 것을 우려했다. 합참은 11월 12일, “다른 의제들이 1개월 내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은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현재의 접촉선을 확정하지는 공산군 측 제안을 수락하라고 릿지웨이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이 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상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⁵⁹⁾

릿지웨이는 이러한 양보는 본질적으로 유엔군 측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양보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확고하게 버티기를 강조했지만, 워싱턴의 결정은 확고했다. 워싱턴 당국에서 이러한 양보를 결정했던 데는 외교적 입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미국은 당시 11월 6일 개막된 6차 유엔총회에서 소련과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다. 소련은 원폭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4대강국과 중국간의 평화회의 그리고 38도선을 기준한 한국의 휴전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분계선 협상을 가능한 빨리 타결하고자 했고, 릿지웨이나 유엔군 측 협상대표단의 입장에서 볼 때 불만스러운 양보를 지시했던 것이다.⁶⁰⁾

결국 협상을 통해 개성지역을 확보하려던 유엔군 측의 노력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유엔군 측이 견지한 기본입장

58) Summary of Proceedings, Twenty-fifth Session, 19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12,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352~374쪽.

59) “Memorandum on the Substance of Discussions at a Department of State-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1951. 11. 12, FRUS, Vol. VII, pp. 1122~1124;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1979, 64~65쪽.

60)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1979, 68~70쪽.

과 회담에서 구사한 전략의 불일치에서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유엔군 측이 개성지역을 반드시 확보하고자 했다면, 공산군 측의 요구인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었다. 개성은 38도선 아래 위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은 현전선을 고집하면서 보상의 개념을 내세웠다.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과 더 강하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 공산군 측이 쉽게 양보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 동안 유엔군 측의 지상작전과 공중공습은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고 위력적이었지만,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킬 만큼 결정적이지는 못했다. 결국 현전선을 고집할 것이라면 개성지역을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점령하는 방법이 유일했지만, 그 역시 실행되지 못했다.

군사분계선 협상과정에서 개성지역에 대한 워싱턴과 릿지웨이 사이의 견해 차이도 이러한 혼선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것은 협상의 지휘계통상 정세판단의 근거가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릿지웨이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우선시하였고,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대처하기를 원했다. 반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휴전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내의 여론과 국제정세 및 동맹국과의 관계, 대유엔 외교까지 고려해야만 했다. 따라서 방어진지나 개성지역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현지 군지휘관들과 차이가 있었다.⁶¹⁾

(2) 쟁점 ② : 전투계속의 원칙

다음날인 11월 13일 제26차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전투 중지’(stop fight)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에게 ‘어디서’ 전

61) 훗날 합참의장 브래들리는 개성이라는 장소에 관한 오랜 논쟁은 잘못이었으며 그 문제는 회담 결렬의 모험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고 개인의견을 밝혔다(『국무부-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의 토의 본질에 관한 각서 1951. 11. 12』,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1979, 508쪽 재인용).

투를 중지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유엔군 측은 '어디서'(실제 접촉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분계선을 작성하지는 요구)가 아니라 '언제'(휴전 협정 조인시점) 전투를 중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우리는 휴전 조인 시점의 접촉선에서 전투를 중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면 전투를 중단한다는 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제안은 "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결정되면 전투를 중단하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음날인 11월 14일 제27차 분과위원회 회의는 특히 이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했던 회의였다.⁶²⁾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 협상에 합의하면, 그것은 '사실상 정전'(de facto cease-fire)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공산군 측 이상조는, "우리가 즉시 정전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였고, "그것은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선의 모든 병사들이 바라는 바"이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확정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⁶³⁾

유엔군 측 버크 소장은 공산군 측 대표가 주장한 현재의 접촉선에서 '즉각' 정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이며 전혀 새로운 관점이라고 말했다. 유엔군 측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엔군 측은 회담이 지연되면, 휴전 체결 시까지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릿지웨이는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의 전투 중지는 유엔군 측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협상에 대한 압력으로 군사적 수단을 활용

62) Summary of Proceedings, Twenty-seventh Session, 21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14,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397~422쪽.

63) Summary of Proceedings, Twenty-ninth Session, 23rd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16,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439~466쪽.

할 여지를 제한하게 될 수도 있었다.⁶⁴⁾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서두성명에서, "전투는 휴전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바 있었다.⁶⁵⁾ 휴전 성립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은 1951년 초 미국이 휴전정책을 수립할 때 한차례 논쟁이 되었던 문제였다. 1951년 2월 애치슨 미국무장관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38선 재돌파를 보류하고 휴전협상에 의한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 데 비해 국방부와 맥아더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38도선을 재돌파하고 평양과 원산 선에서 방어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정책대립은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여 휴전을 제의하는 한편, 휴전 성립 시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절충안으로 귀착되었다. 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이것을 일차적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유엔군 측 대표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접촉선에 관한 공산군 측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이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관철시키고자 했다. 11월 17일 유엔군 측 제안은, 1개월간의 시한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접촉선에 관한 공산군 측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이었지만, 휴전협정 조인 시까지 적대행위는 계속한다는 점을 첫 번째 조항으로 제시하였다.⁶⁶⁾

유엔군 측이 11월 17일 제안을 한 직후, 북한은 독자적으로 외무장관 박헌영 명의로 대유엔 호소문을 발표했다. 당정치국 결정에 따른 것으로, 소련이나 중국과 미리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11월 19일 발표한 이

64) Walter G. Hermes, 앞의 책, 1966, 89쪽.

65) Meetings on the Armistice Proposal in Korea: Record of Events-10 July Proceedings,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s, Record of Events and Transcripts of Proceedings Kaesong Meetings Session 1(10 July 1951) through Session 26(16 August 1951),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1994, 4~24쪽; Robert Frank Rutrell 저, 강승기 역, 『한국전에서의 미공군전략』, 행림출판사, 1982, 337쪽.

66) Summary of Proceedings, Thirtieth Session, 24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17,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467~483쪽.

호소문에서 북한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에서의 전투행동 즉시 중지, 전선으로부터의 군대철수와 2km의 비무장지대 설치,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철수, 한국전쟁을 장기화시킨 당사자의 처벌, 일반 조선인민들에게 야만적인 만행을 저지른 자들의 처벌” 등을 주장했다.⁶⁷⁾ 이 호소문에는 미 공군의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의 호소문에서 첫 단계는, 한국에서의 전투행동을 즉시 중단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유엔군 측의 제안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전투 계속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었다. 중국은 유엔군 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입장이었고, 스탈린은 중국의 결정을 지지했다.⁶⁸⁾ 북한의 대유엔 호소문 발표는 스탈린이 중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스탈린은 북한의 대유엔 호소문이 “현재 미국 측이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북조선 측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행위”라면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⁶⁹⁾ 그러나 북한은 이 호소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예프는 본국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⁷⁰⁾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북한과 중국 간에 이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

67) 『평양으로부터 라주바예프가 모스크바 소련외무부 그로미코에게』 1951. 11. 21. 『한국전쟁관련 소련 외교문서』, 라주바예프는 이날 전문에 박헌영이 파리의 유엔총회 의장 및 뉴욕의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성명서 본문을 전달했다. 1951년 11월 19일자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상 박헌영 명의로 되어 있다.

68) 『毛澤東關於朝鮮停戰談判和中國國內情況等問題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한반도 정전담판과 중국 국내상황 등에 관한 문제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11. 14,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1102~1104쪽; 『史達林關於朝鮮停戰談判問題致毛澤東電(스탈린이 한반도 정전담판에 관한 문제를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 11. 19,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1108쪽.

69) 『그로미코가 북한주재 라주바예프에게』 1951. 11. 19, 『한국전쟁관련 소련 외교문서』.

70) 『그로미코가 말렌코프에게(라주바예프에게 전달)』 1951. 11. 20, No.334, 『한국전쟁관련 소련 외교문서』, 심지화 편, 앞의 자료 下冊, 2003, 1109~1110쪽.

다. 공산 3국간의 내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일방적인 호소문 발표였지만, 북한의 돌출 행동은 공산군 측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미군 폭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북한은 군사분계선 협상이 타결되면 즉각 전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실질적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정도로 유엔군 측과 합의하고자 하였고, 소련은 중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

공산군 측 대표단은 11월 21일 유엔군 측의 제안을 정식으로 수락하였고, 유엔군 측의 ‘전투계속의 원칙’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⁷¹⁾ 1951년 11월 27일 가조인한 군사분계선 협정문 초안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조항이 첫 번째 항목으로 명시되었다.⁷²⁾ 결국 양측이 군사분계선을 확정했지만,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전제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소모전이 지속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4. 맺 음 말

군사분계선 협상은 의제 채택 후 양측이 다룬 첫 의제였다.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공산군 측의 ‘38도선’ 주장과 유엔군 측의 ‘실제 접촉선’이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협상 과정에서 일련의 ‘개성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회담이 결렬되었고, 다시 회담이 재개되면서 회담장소가 판문점으로 이전되었다. 개성사건과 회담장소 이전, 이후 군사분계선 협상

71) Summary of Proceedings, Thirty-third Session, 27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21,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498~510쪽.

72) Summary of Proceedings, Thirty-seventh Session, 31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1. 27: Enclosure (1): Proposed Agreement on Item 2 for Plenary Session,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538~541쪽.

과정에서 양측이 '개성지역'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대립했던 점은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군사분계선 협상은 1951년 7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개성회담(7월 26일~8월 23일), 협상의 결렬(8월 23일~10월 25일), 판문점 회담(10월 25일~11월 27일)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2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로 회담이 진행된 것은 2개월에 불과했다. 회담이 진행된 시기의 쟁점은 첫 번째는 군사분계선 설정의 원칙인 38도선과 현전선의 대립이었다. 38도선 논쟁은 한 달도 채 안 되어 공산군 측이 '38도선 조정방안'을 내세워 양보하였고, 유엔군 측 역시 보상 개념을 포기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에 최대의 쟁점이자 난관은 '개성'문제였다. 이는 일련의 개성사건과 회담장소 이전, 개성지역 확보를 위한 양측의 대립이 미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회담장소 문제는 회담의 시작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불러왔고, 7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련의 개성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8월 23일 유엔군 폭격사건은 회담을 결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담이 중단된 시기에도 양측은 개성사건과 회담장소 이전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결국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이전한 후에도 양측은 개성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설전을 계속하였으며, 유엔군 측이 개성지역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11월 14일이 되어서였다. 이렇게 볼 때 군사분계선 협상이 진행된 4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의 쟁점은 개성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은 전투 계속의 원칙 문제였다. 이 문제는 11월 17일 유엔군 측의 제안 이후 며칠간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양측의 합의로 이를 군사분계선 협정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했다. 군사분계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이는 대규모 폭격과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투를 계속한 것은 모순이었다.

공산군 측은 처음에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동시에 전투를 중지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유엔군 측이 강력하게 주장한 이러한 전제를 '슬그머니' 받아들였다. 공산군 측 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전투 중지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은 무시되었다. 중국은 유엔군 측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소련은 중국의 결정에 동의했다. 비록 유엔군 측이 먼저 이러한 원칙을 제기했지만, 공산군 측이 결국 이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누어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군사분계선 협상 결과에 대한 양측의 평가는 상반된다.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 설정과 개성지역 확보에서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공산군 측은 애초에 그들이 주장한 38도선 주장을 포기했지만, 실제 접촉선에 전혀 조정을 하지 않은 군사분계선을 설정함으로써 내용적으로 '38도선 조정방안'을 관철시켰다. 또한 개성 지역의 흥정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개성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유엔군 측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이다. 릿지웨이를 비롯한 협상대표단은 성급한 처사였다거나 지나친 양보라고 불만스러워했다. 워싱턴의 지시로 결국 개성지역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접어야 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군사분계선 협상과정에서 전투 계속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이후 협상과정에서 공산군 측에 군사적 압력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군 측은 휴전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우월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공산군 측에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입혔다.

(원고투고일 : 2008. 3. 19, 심사수정일 : 2008. 5. 23,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휴전회담, 38도선, 군사분계선, 판문점, 접촉선, 개성사건, 종립지대, 휴전선, 연락장교회의

<ABSTRACT>

The *Gaeseong* Incident and the Negotiat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Early Truce Talks
during the Korean War

Kim, Bo-young

The hot issue in the Truce Talk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insisting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side should be the 38th Parallel insisting by the Communist side and the actual contact line. But the factors of delaying Truce Talks are the issues about *Gaeseong* Incident and the Movement of Truce Village. During the reopening talks after movement of Truce Village to *Gaeseong*, the two sides were continuously confronted to secure the *Gaeseong* area. Finally, the UNC side gave up the *Gaeseong* area although securing the *Gaeseong* area after moving Truce Village to *Pamunjeom*. In the other hand the Communist side secured successfully which was the unveiling issues in the Truce Talks.

The principle of continuing combat actions became the exposing issue bringing the worst casualties in the war with extending the talks. The UNC side wanted to do continuously combat actions until s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even after establishing the MDL, the Communist side accepted the proposal withstand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s request which was the stopping combat actions, Even though the UNC side could not secure the *Gaeseong* area, the UNC side appealed and set the establishment of the MDL based on the current contact line. With agreement the principle of continuing combat actions, the UNC side gained

the preferential clue which could execute the military pressure to the communist side after the above mentioned agreement.

Although the Truce Talks began to stop the Korean War, the continuing combat actions for gaining a domain terrain features during the Truce Talks kept a few confrontations. At the beginning in the talks, the UNC side appealed and strongly insisted the principle, but the Communist side accepted finally the proposed issue. It is meaning that the Communist also have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ults. In the process of the talks, the role and op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KPA were very restricted.

Key Words : Truce Talks,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Pamunjeom*, Contact Line, the *Gaeseong* Incident, the Neutral Zone, the Cease-fire Line, Truce Village, Liaison Officers' Meeting